보성, 이색 체험·감성 여행 프로그램 주목

'보성愛 물들茶' 자연 활용 '힐링 여행'
차밭 피크닉·율포해변 감성 캠핑 눈길

보성군이 21일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인 '보성애(愛) 물들차(茶)'를 론칭, 주목받고 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힐링 여행에 미식을 접목해 최신 트렌드 기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애(愛) 물들차(茶)'는 차밭 피크닉·율포해변 감성 캠핑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생태녹색관광자원화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성 차밭과 율포해변 일원에서 티(Tea) 푸드, 보성 특산물 등을 페어링(Pairing)한 피크닉·캠핑 도구를 대여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차밭 체험 프로그램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차 음료와 지역민이 준비한 티푸드를 차밭에서 즐기는 봇재그린다향&한국차문화공원 '애프터눈티 피크닉 체험'과 여유로운 숲길을 산책하며 넓은 차밭이 보이는 유리온실에서 차 한잔 즐기는 보림제다 '힐링 다도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한옥에서 숙박 후 블렌딩 티 체험과 브런치를 즐기는 수진한옥펜션 '쉼이 있는 한옥 체험', 녹차로 만든 한정식 한상과 한옥 마당에서 후식을 즐기는 청광도예원 '맛있는 녹차 체험' 등이 있다.

율포 해변 체험은 노을 지는 바다에서 프라이빗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지역민이 준비해 둔 특산물과 캠핑 도구를 대여해 즐기는 농부와 바다 체험마을 '경험하는 캠프닉 체험'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감상하며 대여품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 깨끗이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

보성군은 '보성愛 물들茶'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성의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이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체험은 티푸드와 특산물, 장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각 운영 장소 별 누리집과 팜파티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현재도 시범 운영 중이므로 사전 예약하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보성군이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인 '보성애(愛) 물들차(茶)'를 론칭, 주목받고 있다. 봇재그린다향·한국차문화공원의 '애프터눈티 피크닉 체험' 등 다양한 차밭 체험 프로그램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체험은 관광명소에서 예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식 여행에 자연이 선물해주는 풍경을 더한 기획 여행 상품"이라며 "많은 분들이 보성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곡성군이 곡성읍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스피커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주민 디지털 체험존 호응

스마트폰·키오스크·AI 스피커 사용법 안내

곡성군이 지난 18일부터 곡성읍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최신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스피커 사용법을 1대1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신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실생활에서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올해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48%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고령 주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가 통화 기능 외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최근 민간 분야는 물론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과 온라인 활용이 늘면서 정보화 기기 사용법 숙지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도가 높은 필수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커피 주문, 기차·영화 예약, 무인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을 제공한다.

최근 식당이나 각종 상점을 방문했을 때 고령층을 당황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키오스크다. 키오스크가 낯설어 주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많은 만큼 키오스크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디지털 체험존에는 AI 스피커도 체험할 수 있다. AI 스피커는 단순히 음악 재생을 넘어 시간 라디오·뉴스 재생, 날씨 검색, 번역, 음성 검색, 일정 관리, 타이머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스마트 홈 구축과 가정 내 IoT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존에서는 AI 스피커의 기본 사용법 교육과 함께 네이버 클로바에 연동해 홈 IoT 기기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체험도 제공한다.

디지털 체험존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레저문화센터에 마련된 체험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마련된 체험장은 5일장이 열리는 날(끝자리가 3·8로 끝나는 날)에 이용할 수 있다. /곡성=이호산 기자

고흥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고흥군이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최근 시작된 찾아가는 신고 접수는 첫날에는 동강면 마동마을과 과역면 유동마을, 두원면 영동마을에서, 이튿날은 고흥읍 옥하마을, 포두면 후동마을, 점암면 사동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과 고흥군 유족회는 전남도·고흥군 공무원들과 함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홍보와 주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했으며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를 받았다.

여순사건 신고 접수는 고흥군 행정과와 16개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 공무원 32명을 지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간 신고 접수를 받는다.

고흥군 관계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광양경제청, 해룡산단 민간개발사업자 공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해룡일반산업단지(2-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공모'를 공고한다.

광양경제청은 19일 "해룡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대우건설) 지정 취소(2022년 4월 20일)에 따른 대체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발 면적은 60만8천224㎡다.

공모는 사업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이윤을 반영하고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을 국토부·산자부와 협의,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공모에 반영했다.

지난 2월 14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광양경제정 핵심 전략사업(양극재 생산 규모 확대, 전구체 공장 신규 유치, 지역 연구소 연계 등을 통해 이차전지 생산 기지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과 광양만권 인근 산단과 연계한 입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단 부지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소방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호응

담양소방서는 최근 담주초등학교 학생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향상과 사고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사진)을 운영했다.

교육은 동영상을 이용한 생활밀착형 체험 교육 위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직접 몸으로 익혀 재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됐다.

체험 코스는 이동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해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소화기 시뮬레이션 ▲지진·화재 대피 체험(119 신고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박상래 담양소방서장은 "지역·환경적 여건으로 안전 체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학생들에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이동 체험 차량을 활용한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학생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